

“불교의 효사상은 보은 윤리서 비롯”

한국정토학회 ‘조상신앙’ 주제 학술세미나 ‘눈길’

49재를 비롯한 다양한 조상신앙 불교의식에 대한 고찰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한국정토학회(회장 보광)는 10월 11일 인천 흥륜사에서 ‘조상신앙’을 주제로 제17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생전예수재, 죽음 미리 준비하는 과정 첫 발제를 맡은 보광 스님은 ‘생전예수재’에 대해 조명했다. 생전예수재는 스스로의 사후를 위해 수행하고 염불하며 복을 닦고 공덕을 짓는 49재 의식으로 죽은자의 천도 의식과 접합된 불교만의 독특한 의식이다.

보광 스님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49재를 미리 지냄으로써 사후세계를 체험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의 신앙형태”라고 정의하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조상을 천도하는 효 신앙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광 스님은 “일각에서 기독교계의 면죄부 판매와 비슷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생전예수재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예수 신앙은 불교의 지장신앙과 중국 도교의 사상이 결합돼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음시식, 불교철학 드러난 대표 의식 신구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는 ‘관음시식’을 주제로 이 속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고찰했다. 신 교수는 “관음시식은 불교의

식 중 불보살 공양에 이어 영가들을 대접하는 하단시식에 속한다”며 “이 과정에는 삼천대천세계라는 방대한 불교의 세계관과, 번뇌망상으로 가려진 지혜와 덕을 발현하기 원하는 불교의 인간관이 모두 녹아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우리 불교의식에는 문학 성악 기악 미술 무용과 함께 철학이 함께 녹아 있다”며 “조상들이 물려준 철학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이를 미신적 요소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10월 11일 불교재의식 전문 고찰 생전예수재·관음 등 참의미 밝혀 “단순한 기복 시각 버려야” 주장

관음, 심신정화 기능이 더 크다 구미대 건국대 외래교수는 ‘관음’을 중심으로 종교의 공통요소인 ‘뜻밖의례’가 불교에서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밝혔다. 구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관육을 제외하고는 천도제 등에서 불보살을 모신 상단과 중단 관육을 보기 힘든데 이는 한국문화의 특징”이라며 “중생이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싹텄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상과 신앙은 물론, 산자를 대상으로 한 뜻은



10월 11일 인천 흥륜사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재의식을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의례가 발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특히 대상에게 공덕을 베푸는 의미보다 행하는 이의 심신을 정화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본래 의미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문화, 효사상 저축 안돼

이철영 을지대 교수는 화장문화의 시작이 선사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족의 고유한 장법이였음을 밝히고, 고려시대 불교가 융성하며 매장과 함께 가장 보편적인 장법으로 자리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 들어 불교 배척과 함께 화장이 배척의 대상이 된 이후 유교 정체성으로 기피대상이 됐다. 하지만 유교 생사관과 논리에는 화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다”며 “가장 큰 저축점은 효사상이지만 최근에는 효와 분리하여 인식함으로써

서 새로운 죽음의례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효사상, 평화공존주의에 기여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는 “불교 효사상은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는 보은윤리”라며 “보은 사상으로 우란분재 등 세시풍속이 실현되며 이러한 윤리는 사회적 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양 명예교수는 “이는 유교윤리와는 대응되는데, 현세에서 부모를 섬기는 효와 달리 삼세의 부모와 망부모의 천도를 논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이라며 “이는 지극한 인본주의와 이타주의, 평화공존주의를 드러낸 것으로 물질문명의 이기에 함몰된 현대사회를 새롭게 꾸려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담사상연, 제13회 청담학술세미나

11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불교정화의 주역이었던 청담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청담사상연구소(소장 허익구)는 11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3회 청담사상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가 ‘대한불교조계종의 토대를 형성한 동산스님과 청담스님의 역할’, 최원섭 동국대 박사가 ‘청담대종사의 영산도가 구현

하려고 한 거대총림 조계종’,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마가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출범 50년을 맞아 살펴본 청담대종사의 6대 사업’ 등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선용 스님이 ‘청담대종사의 조계종지와 청정승가 전통회복 운동’, 김완정 동국대 외래교수가 ‘청담대종사의 조계종의 간화선 전통계승과 마음사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예연구, ‘불교상담과 청소년’ 포럼

10월 29일, 성폭력·집단따돌림 등 문제해결 모색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10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성북동 동방대학원대 호운미술관에서 ‘불교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4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청소년 상담기법 개발을 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정미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해결을 위한 불교 상담-심우도를 중심으로’ △황일란 한남대 교수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영성적 이해와 불교 상담의 시사점’ △신애경 목포대 교수의 ‘청소년의 트라우마 해결에 대한 유식학적 접근’ △서신자 목포대 교수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자기조절 고찰’ △김재욱 송원대 교수의 ‘청소년의 성폭력 사례 연구’ △전현주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청소년을 위한 만다라 프로그램 개발’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밝은사람들 ‘깨달음’ 학술연찬회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서... 수불 스님 기조강연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와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은 11월 29일 오전 10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를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이 기조연설을 하며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붓다의 깨

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 김호귀 동국대 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은 11월 29일 오전 10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를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이 기조연설을 하며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붓다의 깨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성보문화재 장기 보존대책 수립한다

국정감사서 연이은 지적에 10월 17일 수습 대책 발표

문화재청이 최근 관리부실을 지적받은 문화재의 영구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0월 17일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이하 팔만대장경)의 종합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받는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 중인 종합 보존관리계획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팔만대장경의 보존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연구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보존관리의 틀과 제도를 새로이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진행해왔던 ‘대장경판 디지털 영상 및 DB 구축사업’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중복판’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해인사 대장

경판 중복판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일제강점기 보물로 지정(1934년)된 이후, 유지해 오던 팔만대장경의 수량(8만1258판)을 내년 상반기 중에 재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또 매직 표시, 틈질 보수, 왜뿔 사용 등 경판의 훼손과 관련해 훼손 경판의 일회성 보수보다는 종합적인 보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리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 5월 완료예정인 ‘해인사 대장경판 중장기 종합 보존관리계획’에선 경판의 손상 유형과 손상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자료, 수리방법 등을 포함한 상세, 응급 수리매뉴얼을 제작해 손상경판의 종합적인 보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문화재 긴급점검 당시 보존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국보 제18



2013년 6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점검 과정

대장경판 재조사 및 장기 보존계획 부석사 무량수전, 백화현상 개선

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榮州 浮石寺 無量壽殿)’은 ‘보수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은 2010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인 계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2년부터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정기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무량수전은 1916년 일제에 의해 해체 수리 후 100여 년이 지나면서 목재 열화(劣化) 등 보수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특히 방염제로 인해 단층 백화현상 등 부작용이 확인돼 2009년부터 단층 부분을 제외한 기둥 높이 이하만 방염제를 도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방염제 성능평가 및 도포기준 연구’가 완료되는 2015년부터 방염제 성능과 검정 기준 등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세월호와 종교’ 불교평론 열린논단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박사 주제 강연 맡아

〈불교평론〉은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와 함께 10월 23일 ‘세월호 앞에서 종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논단을 진행한다. 발제는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박사(캐나다 리자이나대학 명예교수)가 맡는다.

불교평론은 “사고를 당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가 한 일이란 겨우 천도재나 추도예배가 고작이었다”며 “종교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문제를 설명해온 종교

인, 종교학자라면 이 문제를 피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강남 박사는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맥매스터(McMaster) 대학교에서 〈화염의 법계연기 사상에 대한 연구〉로 종교학 박사학위(Ph.D.)를 받은 후 캐나다 리자이나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가르쳐온 원로학자다. 노덕현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나뻘목 독소 쏙 빠지며 날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까나 중단전 차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활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샤사라다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 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자,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범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학교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